



‘부르고뉴 피노의 꽃, 꼬뜨 드 뉘 핵심 산지’

## 도멘 뒤 끌로 프랑땡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 레 말콘솔

Domaine du Clos Frantin Vosne Romanee Premier Cru Les Malconsorts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꼬뜨 드 뉘		
포도품종	피노누아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등급	프리미에 크뤼	시음 적정 온도	16~17°C
테이스팅 노트	체리, 라즈베리, 블랙커런트 등의 과실향, 약간의 오크와 향신료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향이 잘 어우러진다. 팔렛에서는 우아한 타닌의 구조감과 풀바디의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매우 긴 피니쉬가 인상적인 클래식하고 훌륭한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흰살생선/채소(샐러드)/부드러운치즈/단단한치즈/훈제,염장 음식/밀가루음식(피자,파스타외)		



### 제품설명



레 말콘솔은 본 로마네 프리미에 크뤼에서도 가장 우수한 와인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도멘 뒤 끌로 프랑땡은 말콘솔의 가장 큰 면적(약 1.92ha)을 보유하고 있는 도멘으로, 이는 해당 포도밭이 꼬뜨 드 뉘에서도 가장 유명한 빈야드라는 점에서 부르고뉴 탑급 생산자의 명성을 실감할 수 있다. 레 말콘솔은 직선거리로 로마네 콩티와 400m, 리쉬부르와 600m도 채 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말콘솔'이라는 말의 뜻은 '악의를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콘솔의 공동 소유와 운영을 두고 발생한 지주들간의 갈등을 표현한다. 석회암 토질 기반으로 35~40년 수령의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와인으로 손 수확과 온도 조절 오크통에서 발효를 진행한다. 이후, 오크 배럴에서 16~17개월 숙성을 진행한다. (뉴 오크 비율 35~40%)

### 수상내역



2022빈티지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 IWC 95점 Gold medal  
 2022빈티지詹시스 로빈슨 Jancis Robinson 17점  
 2022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94점

###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페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